



▷신라시대 담공선사가 이종검구들 아(亞)자 형태로 만든 칠불암 아자방.



▷기와로 쌓아 만든 아자방 굴뚝.

왜 亞字일까... 천년 구들도 동안거

인거철에 찾은 '칠불암 아자방'

한번 아궁이불 지피면
1백일간 온기 유지

접구들 부채고래구조 '특이'
세계건축사전에 수록

지리산 화개공의 칠불암 가는 길은 시냇가로 겨울에 잠기고 있었다.

14일(음력 10월 15일)은 동안거 결정일이었다. 전국 70여선원에서 2천여 수행남자들이 화두 하나에 온 우주를 걸고 정진하는 동안거를 맞아 수행자들이 겨울한철 정진하기에 가장 좋았다는 신방 칠불암 아자방(亞字房)의 수행상자를 엿보고 싶었다. 왜 방 모양이 亞자일까... 한번 불을 넣으면 1백일간 식지 않는 비결은 뭘까. 겨울 수행에 군불때는 시간마저 아꼈던 옛선사들의 원력이 담긴 아자방. 정작 산길을 오르는 동안에는 '아자방의 신비는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더 컸다.

하동 쌍계사 입구 쌍계교앞에서 인쪽으로 10여km 구불 구불 산길을 따라가니 '무슨 잡념을 그렇게 잔뜩 조여지고 오느냐'고 호통치듯 '동국제일선원'이라는 현판이 걸린 일주문이 서 있다.

칠불암이라는 잘 이름보다 더 잘 알려진 명불, 바로 통일신라시대 이후 동국제일의 선방으로 명성을 높여온 온동산방 아자방(亞字房) 지방유형문화재 144호이다. 신라 효공왕때 구들도사로 불리던 담공선사(曇公禪師)가 칠불선원에 구들(구운 돌)을 놓으면 서 방의 모양을 준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불리게 됐다고 한다.

남쪽 장방형으로 놓인 아자방은 두칸이 부엌이고 북쪽 세칸이 방이다. 세칸의 서쪽은 뒷간을 두어 뒷마루를 놓았다. 세칸 온돌방은 16평, 정면 5칸 측면 2칸의 맞배집인 아자방은 길이9m 너비8m 규모로 한꺼번에 1백여명의 스님이 앉을 수 있다.

방구조가 직사각형 안에 아(亞)자 형태로 돼 굴뚝안부분은 70cm 낮은 구조다. 그래서 참선하다 잠시 걸터앉아 다리를 펴고 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낮은부분은 풍로인 행경채(行經臺)이고 높은부분은 좌선처로 쓰인다. 일곱칸의 통나무를 아궁이에 한꺼번에 넣고 불을 지피면 1백일간 따뜻함이 유지되어 거문하게 동안거를 보냈다는 불가사의의 아자선방. 그 신비의 열쇠는 구들의 구조에 있다. 아궁이는 최근들어 개조하면서 작아졌지만 고래가 4m쯤 안쪽으로 넓게 들여다 보인다. 아궁이와 방의 높이도 1.8m나 되는 것이 특이하다.

특히 이중으로된 구들구조는 보통의 구조와는 다르게 부채살과 줄고래를 혼합한 형태로 만들어진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부채고래. 여기에 온돌도 2층으로 놓여져있는 것은 유일하다. 아궁이에서 부채살 모양으로 뻗어가는 구들은 중앙에서 다시 줄고래로 모여져 북쪽벽 굴뚝까지 연결돼 있다. 구들에 사용한 토질또한 부근 흙과 차이가 나는 데 구들밑에는 15~30cm 정도의 강회다짐이 있어 일종의 보존층을 형성하고 있다.

구들의 최영택회장은 1백일간 따뜻함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 '아자방은 접구들이어서 밑의 행선처의 구들이 식으면 위 좌선처의 구들로 열이 모아지는데 진흙으로 열을 가둬서 축열기능을 좋게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곳을 조사한 한 학자는 방의 보존효과에 대해 '인자물리학상 태양계의 우주선인 감마선을 이용한 과학적인 것'이라고 분석하고 '구들부터 축조하여 놓은 뒤 건물은 나중에 지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자방은 한번도 개보수 한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1백년에 한번씩 아궁이를 막아버리고 물(水)로써 말끔히 청소를 하면 아무런 부작용없이 불길이 잘들어가 2층까지 끌고 무 따뜻한 온기를 유지했으며 따뜻한 온기는 방주위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되는 것이 특징. 건물은 여러번 고쳤으나 구들은 천년전 그대로의 것이다. 우리의 주거문화중 구들문화는 열속적이 뛰어나다. 황토의 기운을 받아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것이 특징이다.

아자방은 1979년 세계건축학회에서 펴낸 <세계건축사전>에 수록됐으며 국학자들 사이에서는 구들문화의 대표적인 건물인 아자방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만드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칠불암에는 올 동안거를 끝낸 스님이 20명이지만 이 가운데 인거와 상관없이 3년을 기한으로 묵언 정진하는 스님이 18명이나 된다. 그러나 서울푸른 수행자들도 찾아드는 관광객들 때문에 뒷쪽이 새문지는 운상선원에서 정진을 한다. 그렇다고 아자방 선방의 기능을 잃어 버린 것은 아니다. 아자방에서는 칠불암 대승스님들이 저녁마다 정진을 한다. 세간의 반향을 떠난 남자들이 산중 수행처에서마져 인과소유를 피해 두 발살이를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뿐이다.

아자방은 수많은 세월동안 무수한 고초를 겪었다. 순조 20년(1830년) 아자방 건물인 벽안당(壁眼堂)이 실화로 소실되어 금담, 대은스님에 의해 복구됐으나 1948년 여순반란사건당시 국군의 작전상 긴급조치로 전소돼 30년간 폐허로 버려져 있었다. 다행히 구들만은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1982년 건물을 일형복원했다.

칠불암 아자방에서는 벽승, 부휴, 추월, 인허, 무가, 율승, 금담, 대은, 초의선사 등 수많은 선승들이 오도의 숲을 추었다고 전한다. 휴과 불구들의 선방에 앉아 바람결에 문풍지 우는 소리를 천상의 주악으로 들으며 화두를 꿰뚫었음 옛선사들의 모습이 보이는듯 했다.

글=김원우 사진=고영배 기자

지리산 칠불암(七佛庵)은 101년 가야국 김수로왕과 인도 아유타왕국에서 시집온 허황옥의 10왕자중 칠(七)왕자가 외삼촌인 보옥선사와 지리산에 들어가 운상원(雲上院)을 짓고 6년만에 성불하여 부처를 이루자 이를 기뻐한 김수로왕이 절을 크게 짓고 이같이 불렀다고 한다.

선수왕의 대표적 도량 칠불암은 구들문화의 출발지, 남방불교전래설의 시원지, 국악의 발상지, 차문화의 고향등 많은 역사적 의미가 깃든 사찰이다.

칠불암 아자방은 구들문화인

칠불암이 국악의 뿌리인 방패의 발상지로 꼽히는 것은 허황후의 오빠인 보옥선사가 목관악기인 '분지'와 현악기인 '이크탈'이라는 피리를 토속음악에 수용한데서 비롯됐다. 신라의 육보고는 이곳에서 50년동안 거문고를 공부하고 30곡을 지어 세상에 알렸다.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김대립이 828년 차의 종자를 가져와 화개 골짜기에 처음 심었는데 지금도 칠불암 인근에는 아생차밭이 드넓게 분포하고 있다.

칠불암 150m 아래에서 만나

칠불암은 어떤 절인가

김수로왕의 7왕자가 성불한 곳 남방불교 전래·국악·차 '시원지'

'맑은 문화'를 정립시켰다. 이런 앞문문화의 바탕위에서 한민족은 선문화를 만들고 걸출한 선승들을 배출하며 선택을 잇고 궁극에는 우리민족이 갖는 선문화의 꽃을 피웠던 것이다.

또 남방불교전래설을 뒷받침해주는 곳으로서의 의미가 깊다. 이는 우리나라의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인도 아유타국에서 직접 석탑과 불경을 가져와 가야국에 전래했다는 것이다. 칠불암의 전산인 운상원이 197년에 전래된 것으로 보아 고구려 372년 백제 384년 신라 528년에 비해 훨씬 앞서고 있다.

는 연못 '천비연'의 이야기가 가슴을 뭉클하게 해준다. 7왕자가 수행 정진하기 위해 지리산으로 떠나자 김수로왕과 허황옥 왕비는 아들이 보고싶어 이곳을 자주 찾았지만 수행에 방해가 된다며 오빠인 보옥스님에게 번번히 꾸지람만 듣고 못겨날 뿐이었다. 하루는 보옥스님이 '네 아들이 성불했으니 만나 보라'며 연못을 가리켰다고 한다. 허황비가 연못가에 앉았으니 황금빛 가사를 걸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7명의 아들이 보였다는 것이다. 이 7왕자들은 백제 384년 신라 528년에 비해 훨씬 앞서고 있다.



▷허황비가 성불한 7왕자(칠보)를 보았다는 연못 '천비연'.



▷칠불암 아자방전경(사진 위)과 82년 건물보수시 드러난 부채살모양의 방구들.

